

오리온 (271560)

러시아 종전이 가져올 기회

베트남·러시아 성장 가속화

오리온이 주요 해외법인의 CAPA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베트남 법인은 현지 맞춤형 신제품 성공과 설 시즌 판매 호조로 연초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응해 베트남 호찌민 미곡공장과 하노이 연풍공장에 총 14개 신규 라인을 증설해, 2026년까지 생산능력이 약 8,500억 원 수준으로 기존 대비 30%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러시아 법인 또한 초코파이 수요 급증으로 2024년 4분기 가동률이 130%를 초과한 가운데, 2025년 3분기까지 생산라인을 30% 추가 증설하고 신규 공장 설립도 검토 중이다.

러시아 전쟁 종식 수혜주

러-우 전쟁 종식 시 러시아 법인의 중장기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러시아 초코파이 시장에서 70% 점유율을 확보한 동사는 전쟁 이후 서유럽과 중동부 유럽으로의 수출 확대와 루블화 안정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최근 글로벌 소비 양극화 대응을 위해 중국 간식점 채널을 적극 공략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현지 맞춤형 쌀과자 및 베이커리류 신제품 출시가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외법인의 점유율과 수익성 모두 개선될 전망이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9,000원 커버리지 개시

2025년 매출액은 3조 3,073억원(YoY +6.5%), 영업이익은 5,830억원(YoY +7.3%, OPM 17.6%)을 예상한다. 목표주가는 2025년 예상 EPS에 최근 5년 평균 PER 14배를 적용한 149,000원을 제시한다. 현재 주가는 2025년 기준 PER 10배 수준으로 과거 평균 대비 현저히 저평가된 상태이며, 베트남·러시아 법인의 CAPA 확대 및 미국 수출 증가, 그리고 러시아 전쟁 종식 이후의 수출 확대 및 원가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Quarterly earning Forecasts

(십억원, %)

	4Q24E	전년동기대비	전분기대비	컨센서스	컨센서스대비
매출액	862	12.2	11.2	858	0.5
영업이익	160	13.8	16.5	162	-1.3
세전계속사업이익	310	111.2	120.2	171	81.9
지배순이익	236	110.9	136.9	128	85.0
영업이익률 (%)	18.5	+0.2 %pt	+0.8 %pt	18.9	-0.4 %pt
지배순이익률 (%)	27.4	+12.8 %pt	+14.5 %pt	14.9	+12.5 %pt

자료: 유안타증권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십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매출액		2,873	2,912	3,104	3,307
영업이익		467	492	544	583
지배순이익		392	377	508	418
PER		10.1	13.1	8.0	10.2
PBR		1.6	1.7	1.2	1.2
EV/EBITDA		5.1	6.0	3.6	3.1
ROE		16.5	13.9	16.5	12.1

자료: 유안타증권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및 중요 공시는 Appendix 참조



손현정 음식료/전력기기
hyunjeong.son@yuantakorea.com

BUY (I)

목표주가 149,000원 (I)

직전 목표주가 0원

현재주가 (3/10) 107,600원

상승여력 38%

시가총액 42,541억원

총발행주식수 39,536,132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118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113,484주

52주 고/저 110,100원 / 83,900원

외인지분율 28.65%

배당수익률 1.08%

주요주주 오리온홀딩스 외 7 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3.0 2.0 17.0

상대 1.0 (4.1) 22.0

절대 (달러환산) 2.9 0.2 6.3

투자 포인트

1. 해외법인의 강한 성장세

오리온의 핵심 투자포인트는 글로벌 주요 해외법인의 가파른 성장세와 CAPA 확장에 기반한 중장기적인 실적 개선이다. 특히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의 빠른 성장과 적극적인 생산능력 확대 전략이 오리온 실적을 견인하고 있으며, 중국 법인 또한 신규 유통 채널 확대와 신제품 전략을 통해 성장세 회복이 기대된다.

1) 베트남: 공격적인 CAPA 증설

오리온의 베트남 법인은 2024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8.2% 증가한 5,145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5년 1월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3%, 20%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 호조와 함께 현지 소비자의 입맛과 트렌드를 반영한 쌀과자, 베이커리류 신제품 출시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당사는 증가하는 현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호찌민 미곡공장에 5개 라인, 하노이 연풍공장에 9개 라인을 증설하는 등 총 14개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베트남 법인의 연간 매출 생산능력(CAPA)은 기존 대비 30% 이상 증가한 약 8,5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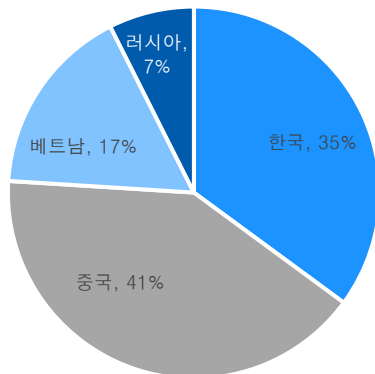
2) 러시아: 초코파이 강국, 가동률 130% 초과

러시아 법인은 초코파이 및 비스킷류 수요 급증으로 인해 생산능력 한계에 직면해 있다. 2024년 4분기 러시아 법인의 생산 가동률은 130%를 초과하며, 연간 생산능력 2,000억 원을 넘어 2,30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당사는 급격히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3분기까지 파이 생산라인을 30% 추가 증설하고 신규 제3공장 설립도 검토 중이다. 증설이 완료되는 2025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CAPA 확대 효과가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중국: 신제품과 신규 유통 채널을 통한 회복

중국 법인은 경쟁 심화와 소비 둔화로 최근 몇 년간 성장이 정체됐으나, 2024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3,400억 원, 영업이익 또한 20% 증가한 703억 원을 기록하며 반등하고 있다. 특히 간식점, 편의점, 창고형 할인점 등 신규 채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며 매출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신제품 매출 비중을 기존 2%에서 4~5% 수준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천원스낵 등 가성비 중심의 SKU를 도입해 현지 소비자의 가치분 소득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오리온 지역별 매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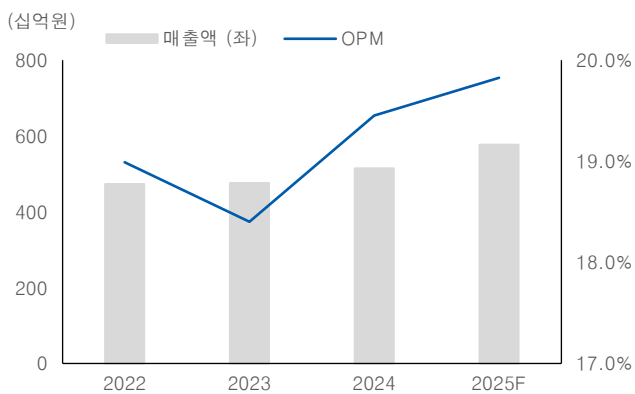
자료: 오리온,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연결조정 전

오리온 해외 공장 증설 현황

해외법인	증설규모	신규 생산 라인	완공 시점
베트남	2026년 말까지 8,500억원 규모	총 14개 라인 (하노이 엔퐁 9개, 호찌민 미퓍 5개)	2027년
러시아	파이 생산라인 30% 증가	파이 생산라인 추가 및 제3공장 검토	4Q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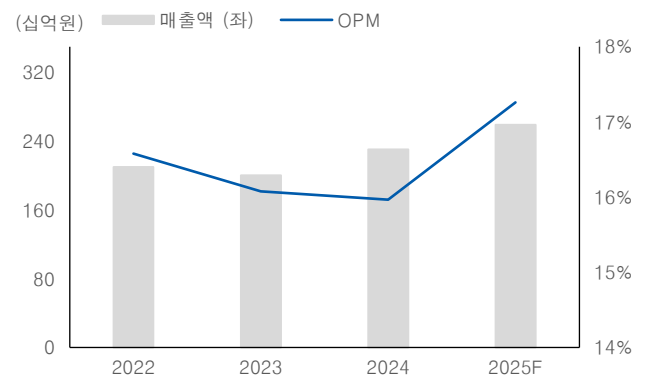
자료: 오리온,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오리온 베트남 법인 매출액 및 OPM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오리온 러시아 법인 매출액 및 OPM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은 농심 러시아 법인에 중장기적 성장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러시아 법인은 초코파이 시장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초코파이 및 비스킷 제품 수요로 인해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성장의 추가 확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

전쟁이 종식되면 경제 제재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면서 서유럽 및 중동부 유럽으로의 수출 확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역은 이미 동사의 초코파이 및 비스킷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선호가 입증된 시장으로, 수출 재개가 곧바로 실적 확대와 연결될 전망이다. 특히 서유럽 지역은 기존 내수 중심의 매출 구조를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전쟁 종결 이후 러시아 루블화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농심 러시아 법인은 초콜릿 원료와 팜유 등 주요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큰 환율로 인해 원가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전쟁 종결로 환율이 안정화되면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회복 역시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다. 전쟁 기간 동안 러시아 소비자들의 비필수 소비재 구매가 위축됐으나, 종전 이후 소비 심리 회복과 가처분소득 증가가 예상되어 간식류 제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러시아 법인의 매출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은 농심 러시아 법인의 중장기적 성장과 실적 개선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초코파이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수출 확대, 원가 절감 효과, 내수 소비 회복이 결합되며 실적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법인 수출 시장 확대 (전쟁 전후 비교)

시장(국가)	전쟁 전 (2021년) 수출 현황	전쟁 중 (2024년) 수출 현황	종전 후 예상 수출 현황
독일, 폴란드 등 서유럽	○ (진출계획)	× (중단)	◎ (본격 재개 및 확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 (수출 일부 진행)	△ (제한적 수출)	◎ (본격적 확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러시아 루블화 환율 변화 시나리오

시나리오	루블화 환율 (USD/RUB)	연간 원부자재 비용 변화(%)	러시아 법인 영업이익률 변화
전쟁 기간(2024년 평균)	95루블	+15% (비용부담 증가)	16% (현재수준)
전쟁 종전 후 안정화	75루블	-10% (비용절감 효과)	18~20% (개선 기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가성비 SKU 및 신제품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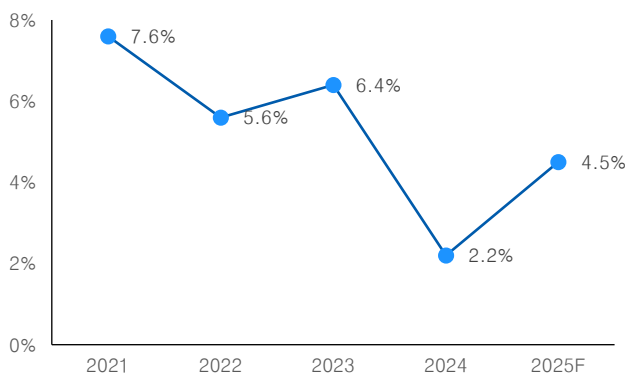
오리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 양극화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성비 중심의 소형 포장(SKU) 제품과 현지 맞춤형 신제품 출시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이미 성공한 '천원스낵'과 같은 소포장 모델을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며 신규 소비자층 확보와 매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는 가성비 중심의 소형 SKU 제품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간식점 채널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중국 주요 간식점 브랜드인 '밍밍현망(鸣鸣很忙)'과 '하오상라이(好想来)'는 2024년 12월 기준 전국 14,000개 이상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포장·저가 제품을 주로 판매한다. 오리온은 이 채널을 통해 초코파이, 오!감자, 꼬북칩, 고래밥 등 주력 제품을 소형 패키지로 제공하며 매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 실제 **중국 내 간식점 채널 매출 비중은 2023년 5%에서 2024년 15%로 급격히 증가**하며 오리온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향후 중국 내수 소비 회복이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매출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베트남에서도 현지 소비자 입맛에 맞춘 쌀과자 및 베이커리류 신제품 전략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5년 베트남 법인의 쌀과자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비자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한 신제품 전략이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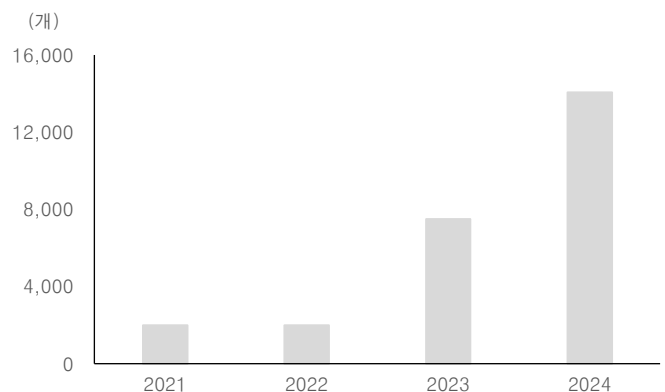
오리온의 가성비 중심 SKU 확대와 현지 맞춤형 신제품 전략은 단기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핵심 투자포인트로 판단된다.

오리온 중국 신제품 매출 비중 추이



자료: 오리온,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연결조정 전

중국 간식점 채널 점포 수 추이



자료: 현지 언론,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진천 물류센터 설립: 미국 수출 확대의 핵심 전략

오리온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수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충북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약 5만 6,000평(약 185,000㎡) 규모의 대규모 생산·물류 통합센터를 설립하고 있다. 2025년 착공 예정인 진천 물류센터는 생산부터 포장, 물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운영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해외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능력(CAPA) 확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 법인의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은 약 8%이지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중 약 45%로 매우 크며, 미국향 수출액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325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꼬북칩’이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2024년 미국 법인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핵심 제품으로 부상했다. 꼬북칩은 미국 내 코스트코, 샘스클럽, 월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 채널에서 성공적으로 판매 중이며, 최근에는 영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유럽 시장으로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꼬북칩은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생산·판매되고 있으며,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시장의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 국내 생산 시설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진천 물류센터를 통한 생산능력 추가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진천 통합공장의 생산능력 확대는 미국향 수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글로벌 물류비 상승 부담도 완화하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꼬북칩 등 주요 제품의 연 매출이 400억 원을 넘어서면 현지 생산공장 설립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그 이전까지는 진천 물류센터가 미국 시장 공략의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진천 물류센터 설립은 단순한 국내 설비 확장이 아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수출 확대와 중장기적인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평가된다.

해외 꼬북칩 인기



자료: 언론보도,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및 밸류에이션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49,000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오리온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 목표주가를 149,000원으로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한다. 목표주가는 2025년 예상 EPS 10,564원에 최근 5년 평균 PER인 14배를 적용해 산정했다.

오리온의 2025년 매출액은 3조 3,073억원(YoY +6.5%), 영업이익은 5,830억원(YoY +7.3%, OPM 17.6%)으로 예상된다. 베트남과 러시아 법인의 생산능력(CAPA) 확장 및 미국 수출 확대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며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오리온의 주가는 2025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0배 수준으로, 과거 5년 평균 PER인 14배 대비 저평가 상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법인의 안정적인 성장세와 미국 등 신규 수출 시장 확대 전략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매우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될 경우 서유럽과 중앙아시아로의 수출 확대 및 루블화 안정화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추가적인 실적 상승과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오리온 실적테이블

(단위: 십억원)

	1Q24	2Q24	3Q24	4Q24P	1Q25F	2Q25F	3Q25F	4Q25F	2023	2024P	2025F
매출액	748.4	719.3	774.9	861.8	799.5	769.8	823.5	914.6	2,912.4	3,104.3	3,307.3
한국	271.6	277.8	271.1	288.3	280.0	291.9	281.6	296.8	1,070.0	1,108.8	1,150.3
중국	306.4	295.8	322.3	345.6	337.0	322.4	350.4	349.1	1,179.0	1,270.1	1,358.9
베트남	118.2	98.4	121.7	176.3	132.4	110.4	136.4	197.7	475.5	514.6	576.9
러시아	50.5	49.1	61.9	69.0	58.1	53.3	65.0	82.8	200.3	230.5	259.2
기타 및 연결조정	1.7	-1.8	-2.1	-17.4	-8.1	-8.3	-9.9	-11.7	-12.3	-19.7	-38.0
% YoY	12.7%	0.8%	1.1%	12.2%	6.8%	7.0%	6.3%	6.1%	1.4%	6.6%	6.5%
한국	9.5%	1.6%	-0.3%	4.3%	3.1%	5.1%	3.9%	2.9%	13.9%	3.6%	3.7%
중국	16.0%	-0.5%	-2.2%	20.1%	10.0%	9.0%	8.7%	1.0%	-7.5%	7.7%	7.0%
베트남	12.3%	2.8%	3.5%	12.4%	12.0%	12.2%	12.1%	12.1%	0.5%	8.2%	12.1%
러시아	4.8%	-4.8%	27.6%	32.7%	15.1%	8.5%	5.0%	20.0%	-4.6%	15.1%	12.4%
% 매출비중											
한국	36.3%	38.6%	35.0%	33.5%	35.0%	37.9%	34.2%	32.4%	36.7%	35.7%	34.8%
중국	40.9%	41.1%	41.6%	40.1%	42.2%	41.9%	42.6%	38.2%	40.5%	40.9%	41.1%
베트남	15.8%	13.7%	15.7%	20.5%	16.6%	14.3%	16.6%	21.6%	16.3%	16.6%	17.4%
러시아	6.7%	6.8%	8.0%	8.0%	7.3%	6.9%	7.9%	9.1%	6.9%	7.4%	7.8%
영업이익	125.1	121.7	137.1	159.7	134.7	131.7	148.8	167.8	492.4	543.6	583.0
% YoY	26.2%	8.4%	-2.5%	13.8%	7.6%	8.2%	8.6%	5.1%	5.5%	10.4%	7.3%
% 영업이익률	16.7%	16.9%	17.7%	18.5%	16.8%	17.1%	18.1%	18.3%	16.9%	17.5%	17.6%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오리온 (27156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매출액	2,873	2,912	3,104	3,307	3,637
매출원가	1,782	1,785	1,894	2,004	2,200
매출총이익	1,091	1,127	1,211	1,303	1,438
판매비	625	635	667	720	792
영업이익	467	492	544	583	646
EBITDA	628	650	685	711	761
영업외손익	20	28	149	30	42
외환관련손익	2	2	-15	-13	-18
이자손익	20	34	48	67	84
관계기업관련손익	1	1	0	0	0
기타	-3	-9	116	-23	-2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87	520	692	613	689
법인세비용	88	135	173	186	214
계속사업순이익	398	385	519	427	475
중단사업순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398	385	519	427	475
지배지분순이익	392	377	508	418	464
포괄순이익	377	354	488	396	444
지배지분포괄이익	373	346	477	387	434

주: 영업이익의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영업활동 현금흐름	546	437	613	504	530
당기순이익	398	385	519	427	475
감가상각비	157	154	139	125	113
외환손익	0	-1	15	13	18
중속, 관계기업관련손익	-1	-1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16	-108	-84	-85	-100
기타현금흐름	-24	7	24	24	24
투자활동 현금흐름	-292	-541	-54	-57	-92
투자자산	43	10	-2	-2	-4
유형자산 증가 (CAPEX)	-85	-166	0	0	0
유형자산 감소	10	1	0	0	0
기타현금흐름	-260	-385	-52	-55	-88
재무활동 현금흐름	-177	-138	-60	-60	-59
단기차입금	23	-20	1	1	1
사채 및 장기차입금	-160	-69	0	0	0
자본	0	0	0	0	0
현금배당	-30	-38	-49	-49	-49
기타현금흐름	-11	-11	-11	-11	-11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18	-2	31	35	46
현금의 증감	59	-244	531	422	424
기초 현금	550	610	366	897	1,319
기말 현금	610	366	897	1,319	1,743
NOPLAT	467	492	544	583	646
FCF	461	270	613	504	530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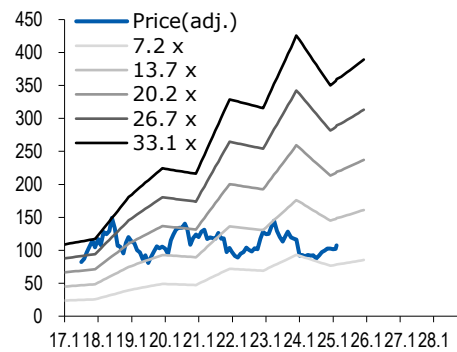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십억원)				
결산(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유동자산	1,470	1,628	2,242	2,752	3,319
현금및현금성자산	610	366	897	1,319	1,74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224	212	226	241	265
재고자산	235	260	277	295	324
비유동자산	1,901	1,893	1,754	1,628	1,517
유형자산	1,668	1,658	1,520	1,395	1,282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 자산	32	33	35	38	41
기타투자자산	21	5	5	5	5
자산총계	3,372	3,521	3,996	4,380	4,836
유동부채	556	399	425	453	49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61	304	324	346	380
단기차입금	24	4	4	4	4
유동성장기부채	70	0	0	0	0
비유동부채	176	167	177	188	205
장기차입금	0	0	0	0	0
사채	0	0	0	0	0
부채총계	732	566	602	640	702
지배지분	2,554	2,862	3,289	3,627	4,010
자본금	20	20	20	20	20
자본잉여금	598	598	598	598	598
이익잉여금	1,218	1,560	2,018	2,387	2,802
비지배지분	85	93	104	114	124
자본총계	2,639	2,955	3,394	3,740	4,134
순차입금	-877	-1,104	-1,685	-2,159	-2,670
총차입금	118	29	29	30	31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EPS	9,924	9,527	12,840	10,564	11,747
BPS	64,606	72,413	83,217	91,744	101,455
EBITDAPS	15,892	16,430	17,332	17,976	19,257
SPS	72,674	73,663	78,519	83,654	92,001
DPS	950	1,250	1,250	1,250	1,250
PER	10.1	13.1	8.0	10.2	9.2
PBR	1.6	1.7	1.2	1.2	1.1
EV/EBITDA	5.1	6.0	3.6	3.1	2.2
PSR	1.4	1.7	1.3	1.3	1.2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12월)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매출액 증가율 (%)	22.0	1.4	6.6	6.5	10.0
영업이익 증가율 (%)	25.1	5.5	10.4	7.3	10.9
지배순이익 증가율 (%)	52.2	-4.0	34.8	-17.7	11.2
매출총이익률 (%)	38.0	38.7	39.0	39.4	39.5
영업이익률 (%)	16.2	16.9	17.5	17.6	17.8
지배순이익률 (%)	13.7	12.9	16.4	12.6	12.8
EBITDA 마진 (%)	21.9	22.3	22.1	21.5	20.9
ROIC	20.9	20.4	23.8	25.6	30.5
ROA	12.1	10.9	13.5	10.0	10.1
ROE	16.5	13.9	16.5	12.1	12.2
부채비율 (%)	27.8	19.1	17.7	17.1	17.0
순차입금/자기자본 (%)	-34.4	-38.6	-51.2	-59.5	-66.6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106.2	136.8	382.3	400.2	4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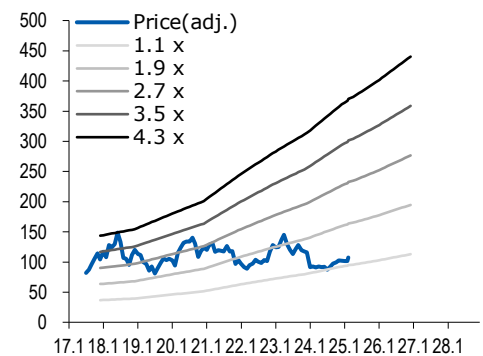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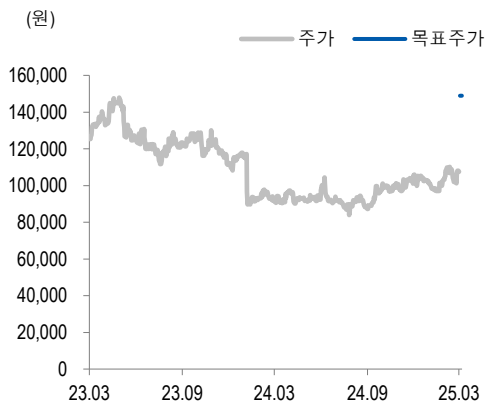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오리온 (2715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03-11	BUY	149,000	1년		
2022-06-15	BUY	150,000	1년	-31.41	-26.67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여건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88.7
Hold(중립)	11.3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03-10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손현정**)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